

皖南事變과 項英

— 항영에 대한 재평가를 중심으로

姜 鉉 士*

< 목 차 >

1. 서론
2. 王明노선과 項英과의 관련성
3. 중공중앙의 신사군 발전방침에 대한 項英의 입장
4. 事變의 처리과정에서 통일전선에 활용된 項英
5. 결론

1. 서론

皖南事變은 중일전쟁시기 국공합작이 유지되고 있던 과정에서 발생한 최대의 사건으로, 이후 국공합작은 형식적인 틀만 남고 양당 간의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공합작사의 분기점이 되는 이 사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어느 쪽이 사변이 발발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곧 대만에서의 연구는 모든 책임이 군령을 어긴 중공측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륙에서의 연구는 직접적인 책임이 반공정책을 실행한 국민정부측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시 신사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였고, 이 사변에서 불의의 희생에 당한 신사군 副軍長 項英도 그 책임

* 漢城大 歷史文化學部 講師

을 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사변의 책임론에 대한 논의를 전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작업임으로 본고에서는 범위를 좁혀, 대륙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항영 책임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곧 환남사변에 대한 내, 외적인 요인 중에서 중공측의 요인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는 그의 과오에 대한 두 가지 비판이 내재되어 있다. 곧 항영이 주로 왕명의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다는 점과 환남사변을 전후로 중공중앙의 지시를 어기면서 우유부단하여 부대이동을 고의로 늦춤으로서 환남사변을 초래한 직접적인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다.¹⁾ 최근에 와서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려는 노력이 보이나, 아직은 미미한 상태라 할 수 있다.²⁾

그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는 서구와 일본의 연구자로부터 시작되었는데, Benton은 항영이 왕명의 일파로 오인되어 잘못된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강서소비에트 시기에 왕명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행동을 단지 왕명의 영향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혁명가이며 노동자출신인 항영이 兩條노선의 투쟁으로 인해 잘못된 평가가 있어왔다는 것이다.³⁾ 한편 肉戶 寬도 항영 만이 왕명노선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팽덕회와 주은래의 사례를 들어 입증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단지 항영이 왕명의 일파로 매도된 것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데 그쳤을 뿐, 또 다른 측면 곧 직접적으로 환남사변과 관련하여 항영이 범

1) 何里, 『皖南事變』, 『近代史研究』(1980-3), 104쪽.

2) 항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시도한 것으로는 王輔一, 『項英傳』(中共黨史出版社, 1995) 이외에도 南北, 『皖南事變縱橫談』, 阮世桐·楊立平主編, 『紀念“皖南事變”50周年專輯』(同濟大學出版社, 1990)의 연구가 대표적이기는 하나 문제제기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왜냐하면 환남사변에 관련된 국민정부의 자료는 아직까지 일부분만이 공개되었으며, 특히 항영에 관한 자료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Gregor Benton, The South Anhui Incident, *Journal of Asian Studies*(1966.8), 683쪽. 아울러 그는 부대이동의 지연에 따른 책임이 항영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택동을 위시한 중공중앙에게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4) 肉戶 寬 編, 『中國八路軍·新四軍史』(河出書房新社, 1988), 74쪽.

한 과오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왜 항영이 중공 중앙으로부터 부당한 평가를 받아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환남사변을 전후하여 항영의 과오로 평가되어온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 검토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려한다. 1) 환남사변을 초래한 원인이 중공측에서는 전적으로 항영에게만 있는가? 2) 항영만의 잘못이 아니라면, 그는 왜 사변에 대한 모든 명을 혼자서 써야만 했는가? 3) 중공중앙이 항영을 왕명의 추종자로 만들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곧 환남사변을 초래하는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할 중공중앙이 오히려 그 책임을 사변 중에 불행히 희생된 항영에게만 전가시켰으며, 사변 후에 초래된 중공 내부의 위기를 만회하고, 사변 후에 국민정부와 진행되고 있었던 협상을 중공측이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환남사변에 대한 중공측의 책임이 현지 지휘관이었던 항영보다, 중공중앙에 더 큰 책임이 있어 중공도 국민정부처럼 사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항영에 대한 재평가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항전시기에 중공이 통일전선을 어떻게 운용하고 활용하였는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할 것이다.

2. 王明노선과 항영과의 관련성

중공중앙이 사변을 초래한 내부원인을 항영에게 전가시켰다고 하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 항영이 범했다고 하는 착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事變후부터 중공중앙이 항영에게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항영이 범한 착오는 무엇인가? 이제까지 항영의 착오로 언급되어 온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전선의 문제에서 중공의 지도부에 있던 왕명이 행한 우경착오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⁵⁾ 이에 대한 근거로는 제시하는 것이 1937년 10월 1일과 2일에 중앙서기처가 張震逸 등에게 보낸 전보이다.

항영동지가 여전히 統一戰線중에 독립성의 원칙을 가져야 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무조건 集中에 不應하고 남방의 전략지점을 건지한다는 방침을 더 이해 못하는 듯싶다.⁶⁾

그러나 이때는 통일전선에서 중공의 독자성을 갖는다는 방침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항영이 중공중앙의 지시를 어겼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중공의 이러한 방침은 1938년 10월의 중공 6계 6중전회의 결의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항영이 보인 행동이 왕명이 주장하던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항영이 왕명의 노선을 추종했다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당시 중공의 다른 지도자들의 고백에서 보이듯이 이 시기 왕명의 노선이 옳다고 여긴 사람은 항영 혼자만이 아니었다. 곧 1937년 12월의 회의에서 彭德懷는 毛澤東의 노선이 정확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왕명노선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회의에서는 모택동의 바른 노선을 지지하지도 않고, 왕명의 틀린 노선에 옹호도 반대도 않는 일종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었는데 이러한 태도는 객관적으로 착오노선을 지지하는 것과 같았다⁷⁾고 하였다. 周恩來도 당시 주로 국민당의 힘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공 자체의 발전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훗날

5) 국민당과의 통일전선에서 왕명은 “모든 것은 통일전선을 통해서”라는 입장을 취했고, 모택동은, 통일전선중에 자주 독립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근거지 건설을 주장하였다.

6) 「中央書記處關於南方各遊擊隊改編方針致張震逸電」(37.10.1), 『新四軍文獻』(1), 37쪽.

7) 彭德懷, 『彭德懷自述』(人民出版社, 1981), 225-6쪽.

언급하고 있다.⁸⁾

다음으로 그가 왕명노선을 추종했다는 또 다른 증거로 주장하는 것은 “何鳴 사건”의 책임이 항영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서안사변 이후 국공합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國共양당은 남방홍군유격대의 개편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쉽게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명은 복건에 주둔하고 있던 국민당 157師와 담판하여 1937년 6월 26일에 兩軍의 합작에 서명하고 약 800여명의 홍군을 이끌고 하산하였다가 국민정부군으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는 다른 지역에 있던 홍군도 자신들과 대치하고 있던 국민정부군과 개별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합작을 성공리에 마친 상태였다. 이 하명사건이후 중공중앙은 지방군과의 합작을 포함하여 하산은 물론 부대의 집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시를 서둘러 내리게 되었다. 곧, 중앙의 방침이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방의 홍군을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던 項英에게만이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何鳴은 항영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하산한 것도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鄧子恢의 발언이다. 훗날 환남사변으로 항영이 죽고 난 후, 항영의 착오로 그가 지적한 것은 대략 세 가지로 줄일 수 있다. 첫째, 등자회가 38년 3월에 신사군정치부 부주임으로 임명되어 연설을 할 때 紅軍이란 말을 사용하자, 항영이 도중에 막고 여전히 홍군의 명칭을 쓰는 것을 질책하고 연단 아래에 국민당 特務가 듣고 있음을 주의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영이 이끌고 있던 幹部會와 군부기관의 總支會, 支部會등은 모두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산에 올라가서 혹은 작은 촌에서 개최하는 등 部隊내에서 비밀리에 당의 활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중공측이 농민동원을 위하여 조직한 農會의 會長을 국민당 涇縣 현장이 붙잡아 가자, 정치부와 民運部를 겸하고 있던 등자회와 민운부의 회원들이 항영에게 가서 신사군의 명의로 보석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항영은 이를 거절

8) 「통일전선에 대해서」, 『周恩來選集』上卷(人民出版社, 1980), 293쪽.

하며 회원들이 단지 농민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당시의 통일전선, 곧 신사군의 정착대상은 농민만이 아니라, 지주와 기타계층이 있으며, 이들이 지주들과 갈등을 빚어내면 신사군만이 고립될 것임을 주의시켰다는 것이다.

셋째, 民運部の 과장이었던 曾如淸이 繁昌의 장강변에 지방유격대를 조직하였는데, 국민정부측으로부터 병역법을 파괴한다는 질책을 듣고 강제해산을 당하자, 항영은 정책을 위반하였다고 비평하고 몰래 曾如淸을 蘇南의 陳毅부대로 보낸 사건이 있었다.⁹⁾ 등자회는 이 세 가지 사항이 모두 불만이었고, 이 모두가 항영이 왕명노선을 추종해서 국민정부측과 타협일변도로 나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등자회의 위의 글은 整風運動 기간에 왕명을 공격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에 일단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¹⁰⁾ 더구나 국민정부 통치지역 내에서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던 항영으로서 국민정부측의 特務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고, 부대내에서 당의 활동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의 오랜 유격생활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며 국민정부측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의 특별한 착오라고 언급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모택동을 비롯해서 중공의 지도부가 주장한 통일전선의 대상에는 항영의 주장처럼 농민만이 아닌, 다른 계층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는 설사 농민계층을 주된 기반으로 삼는다 하여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강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Benton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항영은 신사군이 대중을 동원하고 부대를 확충하면, 蔣介石으로부터 주목과 조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江蘇, 浙江의 財政界를 화나게 하여 장개석과의 통일전선이 깨질 위험성을 염려하였던 것이다.¹¹⁾

마지막으로 曾如淸의 경우는 국민정부 측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

9) 鄧丁恢, 『新四軍的發展壯大與兩條路線的鬭爭』, 『星火燎原』(6), 333쪽.

10) 兩條路線의 투쟁으로 인해 잘못된 평가가 있어왔음은 Benton도 언급하고 있다. 앞의 글, 683쪽.

11) Benton, 위의 글, 683쪽.

다. 항영으로서의 마찰을 피하면서도 병력이 부족한 진의의 부대에 지원군을 보낼 수 있었기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중공중앙의 신사군 발전방침에 대한 項英의 입장

다음으로 항영이 중공중앙의 입장과는 다른 신사군의 발전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먼저 항영의 南進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중공중앙은 1939년 초에 주은래를 환남으로 파견하여 항영과 葉挺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華中の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1940년 4월에 항영은 일주일 내에 7차례에 걸쳐 중앙에 전보를 보내, 강북신사군의 강남으로의 이동과 葉飛, 張道庸의 2개 사단의 남하를 요구하였지만, 당시 中原局과 南方局은 모두 항영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이에 4월 20일 중앙은 항영에게 전보를 보내

장개석과 고축동은 강남, 강북의 신사군을 蘇南적후의 협소한 지역에 몰아넣고, 팔로군과 신사군을 단절시키며, 적당한 시기에 신사군을 섬멸하려 한다....고축동과의 담판중 절대 4, 5支隊와 섬비, 장도용의 부대를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응답하지 말라. 현재와 미래에 전부 혹은 일부 모두 남쪽으로 이동할 수 없다....섬비와 장도용의 부대 및 소북의 모든 부대는 잠시 중원국의 지휘를 받고, 부대이동은 마땅히 중앙의 명령에 근거하여야 한다.¹²⁾

라고 하였다. 중공중앙으로서의 강북에 있는 신사군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더구나 국민정부측이 이동을 요구하기에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영이 판단하건대 이후 강남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를 대비해 국민정부측이 허락을 했을 때에 강북의 부대를 이동시켜 강남의 신사군을

12) 馬洪武 童志強 앞의 책, 245쪽.

증강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더구나 위의 자료에서도 보이듯이 蘇南에 있던 신사군은 협소한 지역에 고립되어 있어 국민정부측의 공격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었기에, 신사군을 책임지고 있었던 항영은 마땅히 부대의 안전을 위해 부대를 이동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신사군과 팔로군의 연결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중공중앙은 이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항영이 그 당시에 남쪽으로 발전해 가고자 하였던 것이 틀리지 않았음은 후에 유소기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유소기는 1941년 2월에 장운일에 보내는 전보에서 과거에 항영이 행하고자 하였던 南進정책은 현재 정확한 정책이 되었다¹³⁾고 말하였다. 결국 항영이 진출하고자 하였다가 중앙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던 蘇南지역은 환남사변 후 신사군의 주된 전략지점으로 떠올라 신사군이 얻고자 애를 쓰는 곳이 되었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것은 신사군이 敵後를 향해 발전한다는 중공중앙의 전략방침을 항영이 집행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곧 1938년 5.4지시에서 중공중앙은 신사군의 전략발전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설정하였는데, 茅山근거지를 대체적으로 건립하고 나서는 부대를 나누어 蘇州, 鎮江, 吳淞 삼각지대로 진입시키고, 다시 일부의 군대를 강북지역으로 진입시킨다¹⁴⁾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어 중공중앙은 5월 14일에 長江局, 東南分局, 項英에게 전보를 보내, 현재의 유리한 시기를 이용하여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敵後方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보다 자유롭게 자기의 역량과 영향을 발전 확대시켜야 하는데, 다만 스스로 엄중한 착오를 범하지 않고 신중하게 한다면 이렇다 할 위험은 없을 것¹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1월 10일에도 모택동, 왕가상, 유소기 등이 항영에게 전보를 보내, “新四軍중 2-3개의 쉼을 장운일에게 보내 그의 지도하에 강북 안휘의 중부지역으로 발전하

13) 「劉少奇關於新四軍皖東部隊的任務致張雲逸電」(41.2.8), 『新四軍文獻』2, 477쪽.

14) 「中央關於新四軍行動方針的指示」(38.5.4), 『新四軍和華中抗日根據地史料選』(1집)(이하『史料選』), 24쪽.

15) 「中央關於新四軍行動方針的指示」(38.5.4), 『史料選』1집, 25쪽.

라"고 하였다. 이어 6계 6中全會후에 중공중앙은 주은래를 皖南의 신사군 군부로 파견하여 신사군이 남쪽을 공격히 하고, 동으로 작전하며, 북으로 발전한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항영과 협의하여 정하였다. 이에 항영은 부대형편을 고려하여 장운일에게 2개 연대를 주어 강을 건너게 하였다. 그리고 이 지시에 근거하여 진의는 1, 2지대 소속 4개단을 이끌고 동쪽의 적후로 진입한 후 모산근거지와 蘇皖邊근거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항영이 중앙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은 진의의 부대를 일부 소환하였다는 것이다. 즉 항영은 환남의 제3지대 제6단의 2개 췌를 파견하고, 대신에 진의의 1지대 1단과 2지대의 3단이 먼저 환남으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진의가 보기에는 항영의 이 결정이 蘇南의 병력을 약화시켜 부대의 발전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¹⁶⁾ 그러나 항영은 진의 부대가 지방무장을 급속히 收編하였기에 이들을 불러들여 “整訓”을 거쳐 신사군내로 완전히 흡수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¹⁷⁾ 그러므로 이것으로 항영이 중앙의 지시를 어겼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1939년 1월에 진의의 1지대는 강북에 교두보를 마련하였는데, 국민정부 부추과 부딪치게 되어 고충동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5월에는 진의가 葉飛로 하여금 제6단을 “江南抗日義勇軍”으로 재편하여 동쪽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결국 진의는 쉼비와의 토론을 거쳐 쉼비에게 부대가 동쪽으로 가서 소멸되면 쉼비의 책임이고, 통일전선을 파괴하면 진의의 책임이므로 쉼비에게 東進하라고 명하였다.¹⁸⁾ 그러나 항영은 이에 반대를 하였다. 항영은 미약한 쉼비의 부대가 선불리 행동을 하였다가 부대 전체가 소멸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신사군을 책임지고 있었던 首長인 항영으로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으므로, 이것 또한 중앙의 지시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陳毅, 「茅山一年」, 『群衆週刊』제3권 22期

17) 당시에는 지방무장 이탈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拙稿, 『抗日戰爭時期 新四軍 연구 : 統一戰線 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3, 101쪽.

18) 葉飛, 「新四軍戰爭的艱苦性, 複雜性和特殊性」, 『大江南北』, 1986년 2기.

더구나 항영은 1939년 8월 강북지역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니 유소기를 신속히 파견해 주도록 중앙에 요청하였다. 이것은 유소기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항영이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없었기에 중앙에 사람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항영이 중앙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것은 다음의 자료에서 더욱 명확히 보인다. 곧 그는 39년 12월 2일에 중앙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이미 江抗 주력 1개 단(老6團)과 4단 및 管文蔚의 부대를 葉飛와 張道庸으로 하여금 이끌고 楊中을 거쳐 강을 건너도록 명령하였다....老6團이 東征을 한후 전투력이 매우 강해졌으며 무기 또한 좋아서 모든 連이 기관총 6정씩을 가지고 있다. 필요하면 1, 2지대에서 병력을 더 뽑아내어 북으로 보낼 수 있다.¹⁹⁾

이와 같은 항영의 보고로 보아 항영은 중앙의 지시를 주어진 조건 내에서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敵後로 발전한다는 것에도 적극 부응하였음이 보인다.

그리고 적후로 발전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항영은 북으로 발전한다는 방침도 또한 소극적으로 집행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이 당시 신사군의 발전방향을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신사군내에 존재하였다. 이에 중공중앙에서는 섭정과 항영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유소기를 화중에 파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유소기는 화중에 도착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向南鞏固, 向東作戰, 向北發展”의 방침을 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남쪽으로 공고히 한다는 것과 북으로 발전한다는 방침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있었다. 만일 북으로의 발전에 치중한다면 지휘의 편리를 위해 軍部도 강북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인 방침에는 합의에 도달하였지만, 세부적으로 발전인가 鞏固인가를 놓고 유소기와 항영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이에 12월 19일 유소기는 중앙에게 대대적으로 발전을 희망하는 지역은 江蘇북부이며, 신사군은 마땅히 병력을 집중시켜 이

19) 南北, 앞의 글, 233쪽.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유소기로서는 환남 부대 전체를 이동시켜서라도 진의가 있는 소북에서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항영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22일과 23일에 유소기와 중앙에 보내는 전보에서 환남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장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방국이 독립적으로 발전하여 북방과 배합하여야 하는데 정치상, 전략상 모두 이에 따라야한다²⁰⁾고 하였다.

항영으로서의 환남부대 전체의 이동이 아닌 일부만을 蘇北으로 보낼 것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럴 경우 그가 걱정한 것은 강북부대의 지휘문제였다. 이 문제는 훗날 군장인 葉挺이 皖東으로 건너가서 江北指揮部를 만들고 나서야 해결되었으며, 이에 1940년 1월 1일 항영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중앙에 제시하였다. 즉 中原局은 이미 皖東에 이르렀으니 신사군 江北前委는 마땅히 취소하고 중원국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현재 군부는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소북의 부대를 제외한 기타 강북지역에 대해 지휘를 할 수가 없기에, 이후 행정상의 문제와 대외문제를 제외하곤 모든 것을 중원국에 넘기고 군부는 강북부대를 지휘하지 않음으로서 통일하고자 하였다.²¹⁾ 이것은 1월 4일에 중공중앙의 동의를 얻어 前敵委員會는 皖東軍政委員會로 바뀌고 중원국이 일괄적으로 지휘하게 되었다.

그리고 항영은 다시 1940년 1월에 개최된 軍分會 및 東南局聯席會議 때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1월 14일에 다음과 같이 中央軍委에 보고하였다.

전략상 북방은 반드시 남방의 配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남방에는 마땅히 핵심을 견지하는 군대가 있어, 남방 각성의 무장과 군중의 투쟁을 영도하고 단결시켜야 한다... 환남의 환경은 북으로 이동은 곤란하다.

그리고 강남의 진의부대로 하여금 강을 건너 소북으로 들어가라는 중앙의 12월 27일 지시에 대해서는

20) 馬洪武 童志強 『新四軍發展史』, (山西人民出版社, 1997), 249쪽.

21) 南北 앞의 글, 234쪽.

“환남과 강남은 각기 독립된 작전단위를 만들어 소복을 쟁취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하에서 강남의 역량으로 환남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같은 날 유소기를 통해 중앙에 보고하는 전보에서 항영은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환남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독립행동을 해서 남방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공작은 모름지기 전국상황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며, 하나의 방면에 한정되어서도 안 되고, 각자의 계획에 따라서도 안 된다는 중앙의 지시는 정확하나 이행하기가 어렵다.²²⁾

곧, 유소기의 입장은 발전에 중점을 두어 신사군 군부를 마땅히 강북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으로 본 것이나, 위의 세 자료에서도 분명히 보이듯이 항영으로서는 환남이 갖는 전략적 가치가 더 높으므로 환남을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강북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양자의 의견을 놓고 중앙은 1940년 1월 18일에 토론을 벌여 최후로 왕가상이起草한 전보를 1월 19일에 중앙서기처의 명의로 항영과 동남국에 보내 신사군발전 방침을 다시 지시하였다. 그 방침의 핵심은 화중은 현재 중공이 전국적으로 발전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며, 장강 이남의 신사군이 우군으로부터 위협과 제한을 받을 때, 일찍이 강남으로부터 1-2개의 단을 강북으로 이동시켜 화중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전국적인 초공이 일어나면 강북에 있는 신사군이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으며, 만일 앞으로 국공 양당이 지역을 나누어 통치를 하게 되면 남쪽으로 가는 것은 여의치 않음으로, 북쪽으로 향하여 장개석과 강을 사이에 두고 통치하고자 한 것이다.²³⁾

또한 만일 정부군으로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 화북의 팔로군과 연계시

22) 馬洪武 童志強, 앞의 책, 250쪽.

23) 『中共中央書記處對新四軍發展力針的指示』(40.1.19), 『新四軍文獻』1, 141쪽.

킨다는 것이 중앙의 의견이었다. 이럴 경우 신사군의 퇴로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북, 소북이고, 다른 하나는 皖 浙 贛 閩교계지역이다. 현재 2개의 퇴로를 모두 준비하여 어느 것을 택할지는 그때 가서 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강 남북의 신사군은 각자의 위치에서 발전을 구해야 할 것이며, 발전은 당연히 마찰을 이룰 것이나, 역량을 발전시킨다면, 마찰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고, 자신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진지를 견지하고, 투항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환남에서의 발전은 비교적 어렵고, 강북에서의 발전은 비교적 쉽기에, 강남의 진의는 마땅히 강북을 향해 발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의 의도는 분명히 강북과 강남에서 각기 발전을 도모하나, 발전의 중점은 강북에 있으므로 군부를 강북으로 이동시켜 효과적으로 지휘하고자 하였으나, 항영의 반대에 부딪혀 절충안을 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곧, 강북의 발전을 염두에 두어 항영이 강남의 부대를 환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는 하나, 환남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중공중앙도 환남의 부대를 차출하여 강북으로 옮길 수 없다는 항영의 의견에 동조한 것이다. 분명히 중공중앙도 항영의 의견에 동조하였으므로 이 사항을 놓고 항영이 중공중앙의 방침을 어겨 신사군이 발전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1월 19일에 중공중앙이 신사군에 하달한 방침은 다시 1월 29일에도 전달되었다. 모택동과 왕가상은 항영과 섭정에게 전보를 보내, 신사군의 주된 출로는 강북이며, 비록 좋은 기회를 놓쳤으나, 여전히 힘을 다하여 강북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⁴⁾ 곧 중공중앙은 신사군 군부가 강북으로의 발전을 주된 신사군의 出路로 삼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항영은 환남의 군부와 주력을 강북으로 옮기고자 하였으나, 문제는 국민정 부군이 환남부대의 강북이동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였었기에 강북에서의 확장을

24) 「毛澤東、王稼祥關於皖南部隊須力爭江北致項英、葉挺電」, 『新四軍文獻』(1), 145쪽.

우려한 정부군이 공격해 올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이들이 떠나고 난 후에 환남의 신사군이 정부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자 모택동은 40년 4월 3일에 예기치 않은 사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항영에게 물어보았다. 구체적으로 환남과 강남지역의 우군이 어느 정도 호의적 인가와 돌연한 사태에 어느 정도 엄호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3戰區의 동향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항영은 4월 9일에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보고²⁵⁾하였다. 더구나 이 보고에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항영이 시종일관 중앙의 방침을 어겼다고는 보기는 더 더욱 어렵다.

환남의 주력을 옮기는 것이 확정된 상황 하에서 진의는 4월 21일에 蘇南으로 옮길 것을 건의²⁶⁾하였으며, 중공중앙은 5월 4일에 이에 동의하면서 환남의 역량이 지나치게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였다. 이에 섭정과 항영은 高級政治工作人員會議를 열어 중앙의 지시를 알리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²⁷⁾ 그러나 강북에서의 계속되는 신사군의 확장으로 인해 華中에서 國共양당간의 마찰이 잦아지고, 더구나 팔로군의 일부가 남하하며, 한덕근의 본거지가 위협을 받게 되자, 국민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였다. 곧 장개석이 中央 75軍 3개 師를 李品仙에게 증원하였기 때문에 皖東에 있는 신사군 4, 5지대는 압박을 받아, 더 이상 동쪽으로 발전해 갈 수 없었다.²⁸⁾

이러한 상황은 항영의 부대이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6월 12일에 항영은 상황이 긴박해 졌기에 원국평을 빨리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곧 정부군이 부대배치와 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환남과 강남을 각개 격파할 준비를 하고 있기에 군부의 이동이 停滯되어 있는데, 만일 이동을 하게 되면 皖南과

25) 「項英關於皖南部隊應付突然事變的準備情況致毛澤東電」, 『新四軍文獻』(1), 153쪽.

26) 「陳毅等建議皖南部隊東移蘇南致中共中央電」, 『新四軍文獻』(1), 157쪽.

27) 錢俊瑞, 「皖南慘變記」, 앞의 책, 86, 91쪽.

28) 「劉少奇關於江北部隊應向東發展向西防禦致毛澤東等電」, 『新四軍文獻』(1), 168쪽.

蘇南사이 에 정부군이 배치되어 있어 두 개의 하천을 건너는데 이들이 걸리므로 공격을 받기가 쉬워 대기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였다.²⁹⁾ 결국 항영도 군부를 옮기는데 동의를 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하였으나, 제반 조건이 이에 따라주지를 않았을 뿐 중앙의 지시를 어긴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³⁰⁾

결국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항영이 중앙의 지시를 어겼다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으며, 항영의 결정과 의견에 대해서도 중공중앙이 충분히 긍정하였음이 보인다. 그것은 항영의 발언에 대해 중앙이 지속적으로 동의를 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4. 事變의 처리과정에서 통일전선에 활용된 項英

그럼에도 환남사변 후에 중공중앙이 그의 과오를 사소한 것까지 언급하였던 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환남사변을 초래한 중공중앙의 과오를 숨기고 항영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중공중앙의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항영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처음 등장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명확하게 보인다. 항영에 대한 평가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점은 항영이 실종되고 나서 생사가 불분명하고, 또한 이동병력 대부분이 희생된 것으로 확정된 41년 1월 15일 이었다.

항전이래 항영은 중앙과 政治原則과 軍事方針에 대해 계속해서 이견을 보여왔

29) 「項英關於軍部東移停滯致中共中央電」, 『新四軍文獻』(1), 171쪽.

30) 이후 부대이동이 늦어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拙稿 「환남사변과 통일전선 - 발발 원인을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16집, 163-84쪽 참조.

다...항영과 원국평은 중앙의 지시에 대해 3년 동안 걸로는 따르는 척하고 속으로는 따르지 않으며, 모든 것을 국민당에 일임하였다...중앙의 지시를 잘 집행한 유소기와 진의는 皖東과 蘇南에서 발전할 수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항영을 따른 鄂中과 淮北에서는 실패로 돌아갔다……이번 실패는 전투상의 실패보다는 항영과 원국평이 행한 기회주의적인 領導의 결과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중앙군위와 중앙의 영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며 매우 위험해 질 것이다……이에 중앙은 항영과 원국평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잠시 下級에 전달하지 말고, 더욱이 黨外에는 알리지 말아야 한다.³¹⁾

그리고 후에 국민정부 측으로부터의 공격이 뜸해지자, 모택동이 결론적으로 항영에 대한 평가를 행하였다. 곧

항영의 사상 속에는 심각한 右傾의 관점이 존재하여, 중앙의 방침을 건결히 실행하지 않았고, 군중을 발동하지 않았으며, 일본 점령지에서 해방구와 인민군대를 확대하지 않았고, 국민당의 공격에 치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이러한 공격에 정신적 조직적인 준비가 결여되어 있었다.³²⁾

이후 항영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하였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모택동의 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후 연안정풍운동에서 왕명을 당내의 우경투항주의로 비판하면서 항영을 왕명노선의 추종자로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兩條노선의 투쟁이란 틀 속에서 항영을 진독수와 같은 우경기회주의자로 보았다. 즉 1943년 3월 연안에서 거행된 정풍운동 기간에 화북, 화중에서의 6년간의 공작경험을 총괄하는 유소기의 보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다.

환남의 책임자와 신사군 군부는 …… 반공완고파의 음모와 무리한 진격에 직면하여 경각성이 없었으며, 계속해서 양보를 하여 대혁명시기 진독수식의 우경기회

31) 『中共中央關於項袁錯誤的決定』(1941.1), 『中共中央文件選集』제13권, 31-33쪽.

32) 『關於打退第2次反共高潮的總結』(41.5.8), 『毛澤東選集』(2), 740쪽.

주의 착오를 반복하였다……계속해서 착오를 견지하여 최후로 군사상으로 착오를 범하여, 결과적으로 환남사변 중에 참혹한 실패를 맞이하였다. 화북, 화중에서의 경험은 준의회의이래 당 중앙의 노선과 방침이 완전히 정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을 위반하는 자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었다.³³⁾

이상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항영에 대한 초기의 평가를 바탕으로 점차 진독수, 왕명등과 연계시키면서 우경투항주의와 기회주의자로 낙인을 찍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초기의 평가의 핵심은 환남사변이 국민당 반공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나, 내부적으로는 항영 개인의 착오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었고 중공중앙의 방침은 항상 옳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 즉 초기의 결정과 훗날의 평가에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 것이다. 1월 15일의 결정에서는 제목과 내용에서도 여러 차례 보듯이 項英과 함께 실종된 袁國平도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정 이후의 평가에서는 오로지 항영만이 언급되고 원국평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렇다면 1월 15일의 결정만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두 사람에게 지우고, 중공중앙의 판단착오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공중앙의 지시는 틀린 적이 없으며, 두 사람이 중앙의 지시를 어기고 다른 노선을 갔기에 사변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두 사람의 과오도 분명히 있다. 즉 신사군이 부대이동 중에 국민정부군과 접전을 벌여 쫓기게 되는 상황에서 항영은 袁國平, 周子昆과 함께 1941년 1월 9일 새벽에 부대를 이탈하여 10일 정오가 돼서야 부대에 복귀한 잘못이 있었다. 정면 돌파를 주장하는 섭정과는 달리, 항영은 일부 핵심지도부 만이라도 포위망을 뚫고 나아가 훗날을 도모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부대로 복귀하여 중공중앙에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서신을 보냈다.³⁴⁾ 만일 하루 동안의 부대

33) 『劉少奇選集』上卷, 人民出版社, 1981, 280쪽.

34) 王輔一, 『項英傳』(中共黨史出版社, 1985), 465쪽.

이탈로 인해 사변의 모든 책임을 이 두 사람이 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³⁵⁾

더구나 위의 결정은 환남사변이 채 끝나지도 않고, 많은 상황에 대한 조사와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었다. 곧 한창 전투가 실행되고 있던 시점이고, 비록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부대를 이탈했다고는 하나 중공 중앙 측에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 신속하게 결정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중앙의 판단과 지시가 정확했다라면 서둘러 팔로군과 신사군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이것은 楊尙昆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보인다. “항영과 같은 종류의 동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내가 보기에 마땅히 구체적인 역사 조건하에서 판단하여야 한다.”³⁶⁾ 이 구체적인 역사 조건을 고려한 것이 바로 위의 결정에 대한 재고이다. 그것은 환남부대가 실패한 그 다음날 발표된 것이기에 결정이 이루어진 시간은 분명히 보다 빠를 것이며, 연안까지의 거리가 수 천리나 떨어져 있었기에, 전체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한 [決定]의 마지막에 구절에 “장차 두 사람의 착오는 당의 7차 대표대회에 제출하여 토의 결정한다.”³⁷⁾고 하였으나 이후 항영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위의 결정은 성급했음이 틀림없다.

이 결정이 내려진 시기에 중공중앙이 하급부대에 보내는 지시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곧 중공중앙은 환남사변 후 내부의 결속을 위하여 1월 20일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긴급히 내렸다.³⁸⁾

1) 정신 준비: 당원과 병사들에게 해석을 하여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 분열과 1927년의 분열은 다른 것이다. 분열 후 우리는 더 더욱 곤란해 질 것이나 일시적일 뿐이고 전망은 밝다. 모든 비관과 실망에 반대하며, 회

35) 논문심사 과정에서 “긴박한 전투상황에서 하루의 이탈은 거의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이것을 약간의 실수로 간주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부대이탈이 약간의 실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변의 전적인 책임을 부대이탈자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36) 『老年報』(1990.5.16).

37) 阮世炯·楊立平주편, 앞의 책, 206쪽.

38) 『中共中央軍委、總政治部關於目前形勢和任務的指示』(41.1.20), 『新四軍文獻』2, 239쪽.

망이 없다는 동요에 대해 반대한다. 2) 아군을 공고히 한다. 우리군은 이후 모든 노력을 다해 부대를 공고히 하고, 휴식 시간을 벌며 정돈에 들어가며,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모든 主力兵團은 마땅히 지방성을 벗어나야 하며, 필요시에 지역을 벗어날 수 있다. 혹 이동 중에 도망을 많이 갈 수가 있으니 마땅히 주의해야 한다.…4) 당의 정책을 파악하여야 한다. 국민당과의 분열이 통일전선 정책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지주, 부르주아가 항전과 민족에 대해 배반하였기에 우리로 하여금 더 더욱 사회의 각 계층, 각 당파를 쟁취하고, 국민정부군에게 동정을 얻어 黨軍이 중공에 대한 분열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고립을 당하지 않고, 친일파와 투항파를 고립시킬 수 있는 것이다. 5)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간부의 단결이 절실하다. 각급 고급간부회의에서 중앙이 행한 項袁착오의 결정을 보고하고 부대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시켜라. 간부로 하여금 당을 믿게 하고 중앙을 믿게 하여 상급과 중앙을 무시하는 관념을 바로 잡도록 하라. 고급간부들로 하여금 신사군의 실패는 항영과 원국평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지시켜라.… 그들에게 동요는 타당치 않음을 이해시켜라. 중앙과 모택동의 영도 하에 단결해야 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라.

이 지시가 내려오게 된 것은 위 지시내용에서도 보이듯이, 사변으로 인해 중공군 내부의 동요가 극심하여 일부 이탈자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런 내부 동요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앙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근 7,000여 명에 달하는 부대가 국민정부군에게 몰살당함으로써 지도부에 대한 의심은 물론 생존에 대한 위협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국공합작의 결렬과 그로 인한 정부군의 대대적인 토벌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예전에 국공합작의 실패로 인해 많은 쓰라린 경험을 하였던 간부들로서는 더 더욱 공포가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위의 지시는 1927년 시기의 분열과는 다르며, 전망이 밝을뿐더러 통일전선 정책이 취소된 것은 아니기에 이에 더 더욱 열심히 추진할 것과, 특히 당간부의 단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앙의 영도는 정확하였음을 주입시키고자 한 것이다.

중공중앙은 이에 그치지 않고 1월 27일에도 사변에 관한 지시와, 항영과 원국평에 대한 결정 등은 매우 중요함으로 각 당의 조직에서는 깊이 있게 토의하고 전달

하여 즉각 집행하도록 하고 그 상황을 중앙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다시금 1927년과 비교할 때에 이번은 결코 장기적인 암흑시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모든 비관과 실망은 근거가 없는 것³⁹⁾이라고 하여 모든 당원들을 안심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당원들에게 모든 어려움과 희생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투쟁을 견지하도록 호소하고, 환남사변의 교훈과 국민당의 투항행위를 이용해서 당원을 확충시키고, 많은 적극분자를 입당시키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전망이 밝음을 재차 강조하여 국민당이 투항하고 內戰이 일어나게 되면 공산당은 전국인민을 구원하는 별이 될 것이므로, 공산당의 조직은 앞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⁴⁰⁾고 선전하였다.

물론 15일의 결정과 20일에 내보낸 지시는 모두 환남사변이 두 사람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중앙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경고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의 착오를 양자에게 전가시킴으로서 중앙의 領導는 여전히 정확함을 억지로 주입시키고자 한 것이다. 요컨대 항영을 환남사변의 주된 책임자로 몰아 중공중앙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회피는 물론이고 국공합작을 연장시키며, 국민정부 측에도 협상의 여지를 주고자 한 것이다.

5. 결론

국민정부와의 마찰을 통해 신사군부대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중공중앙에서는 이전부터 사변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변이 발생하고 난 후에 중공중앙측이 우려하

39) 「中共中央中原局關於打破國民黨軍進攻及日軍掃蕩的指示」(41.1.27), 『新四軍文獻』2, 245쪽.

40) 위의 지시, 『新四軍文獻』2, 246쪽.

던 사태가 발생하였다. 곧 사변으로 인해 신사군은 물론 팔로군까지 동요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특히 각지에 퍼져있던 신사군은 軍部가 국민정부 측의 공격을 받아 지도부가 와해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아울러 사변 후에 이어지는 국민정부 측과 지방군벌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인해 각 지역의 근거지가 축소되고 소멸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그리고 이 위기에 직면하여 군 내부에서는 사기가 저하되면서 많은 병사들이 도망가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더구나 1차 국공합작의 실패 경험이 있었기에 더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는 중공중앙 지도부의 지도력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에 중공중앙 측으로는 이러한 내부의 동요와 분열을 막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중공을 한층 단결시키며 국민정부 측의 압박을 피할 희생양을 찾게 되었다. 국민정부의 포위 속에 희생자가 늘어갈 때에 하루 동안 부대이탈을 한 항영이 책임자로 떠올랐다. 곧 내부적으로는 사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항영 개인에게 전가시킴으로서 중공중앙의 노선과 지시는 항상 정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외부적으로는 항영이 중앙의 지시를 어김으로서 사변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국민정부 측에 주장함으로써 그들로부터의 압박에서 벗어남은 물론 국공합작을 지속시킬 성의가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항영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중공중앙은 환남사변을 통일전선에 적극 활용하였다. 곧 반공파의 勳을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국민정부의 분열을 촉진시키고, 반공파를 고립시키며, 동요하는 중간파를 중공 측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결국 사변이 발생하고 나서 항영을 이용하여 위기를 만회하고자 한 중공 측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어 중공지도부의 위상이 흔들림이 없이 중공 내부의 동요자를 줄일 수 있었다. 아울러 신사군을 소멸시킨 책임을 국민정부 측에 전가시키는 한편, 북으로 이동하라는 중앙의 지시를 항영이 어김으로서 부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정부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中文提要>

在皖南事变当中对新四军副军长项英的评价是否定的。其理由有两个。第一、项英把盲目地追跟随王明的路线。第二、在皖南事变前后项英不按照中共中央的指示拖延了部队的移动，所以他对皖南事变的发生负有直接的责任。但是所谓他的两个错误，其实都是中共中央转嫁责任的结果。

当时中共在江南的势力有所扩大所以国民政府军命令他们移到江北。由于新四军部队移动晚了中共中央预料到可能会发生皖南事变。如若事变真的发生应该怎么处理觉得很棘手。事变发生后中共中央担心的情况都出现了。由于事变动摇了新四军和八路军。尤其他们各地的部队受到了国民政府军的强力的攻击使得中共的指挥部遭到了很大瓦解，这给了中共中央沉重的打击。

并且事变的发生后，国民政府和地方军阀接着对中共发起大规模的攻击，使得中共在各地的根据地接二连三地缩小和消灭。还有危机使得中共内部的士气大大降低，发生了很多士兵逃亡的事情。由于有第一次国共合作失败的阴影使得各地指挥官对中共指挥部产生了怀疑。所以中共中央为了挽救内部的动摇和分裂，加强部队的凝聚力，避免国民政府的压迫，需要有人来承担责任。这时候他们想到的人就是项英。由于他们希望强调中共中央的指示一直是正确的，所以他们把这个责任转嫁给项英个人身上。还有，中共中央对外宣称，事变的发生是因为项英不听中共中央的指示。希望以此来维持国共合作避免国民政府的压迫。

甚至由于把责任转嫁给了项英，中共中央反而积极利用皖南事变来巩固统一战线。就是对剿共和孤立的反共派和动摇的中间派大大宣传把他们团结到中共的者一边，达到分裂国民党目的。结果中共中央通过转嫁责任摆脱了危机，使得内部的动摇稳定下来。还有将消灭新四军的责任转嫁给国民政府，而强调项英不听中共中央的指示而退到江北也有责任，从而在与国民政府的协商中取得优势。

关键词：项英、皖南事变、统一战线、国民政府